

흰물떼새

글·사진 李正雨(鳥類研究家)



學名 Charadrius alexandrinus

英名 Kentish Plover

흰물떼새는 갯벌이나 강변 바닷가해안의 모래밭에서나 볼수있는 몸길이 17cm의 작은 물새의 한종이다.

평생을 땅에서만 걷고 먹이를 찾는 지상성 조류이므로 이런 지역의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보기 힘든 새이기도 하다.

방정스러운 만큼 종종걸음으로 걷다가 서 있기도 하고 또 먹이를 찾아 걸어 다니는 것은 이 새만이 갖는 행태(行態)의 하나이다.

주식(主食)이 되는 것은 물빠진 갯벌에 갇힌 작은 물고기, 조개, 갯지렁이, 곤충, 게 따위인데 이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다닌다. 원래 이 새는 수십종에 달하는 도요새, 물떼새 무리와 같이 나그네새로 알려졌으나 최근 낙동강 하구에서 많은 숫자가 번식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 겨울철 낙동강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무리가 월동한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볼 때 이 새는 이미 우리나라의 텃새화가 된셈이다.

낙동강 하류의 모래섬인 사자도, 장자도의 모래밭에는 5월 하순에 어린 새끼를 볼 수 있는데

갓부화된 새끼는 어미새를 따라 걸을 수 있다.

알은 모래사장의 약간 높은 지대에 모래를 오목하게 파고 한배에 3개(드물게는 4개)를 낳아 암수가 포란하여 부화를 한다.

흰물떼새 어미는 이름 그대로 회갈색이 도는 흰색이기 때문에 모래밭에 있으면 보호색이 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또 등지도 다른새와 달리 이물질의 보탬이 없는 모래밭 그대로 이고, 알 또한 옅은 갈색에 검은 점무늬가 산재해 있으므로 코앞에 있어도 발견이 어렵고 어린 새끼 또한 철저한 보호색을 유지하는 영특한 새이다.

갓 부화된 어린새는 물이 마르면 죽은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도 어미가 부르면 쏜살같이 어미의 곁으로 파고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번식기에는 사람과 같은 천적(?)이 나타나면 등지나 새끼로 부터 멀리 유인하기 위하여 날개를 퍼덕이며 죽어가는 시늉을 하는 의태(疑態)를 심하게 부리는 습성등을 볼때 기이한 생태로 살아가는 오묘한 그들의 세계에 탄복을 금치 못한다.